불자 세상보기

"마음이 깨끗해야 국토가 청정해진다."〈유마경〉 자연이 나와 둘이 아니기에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불교환경운동의 주요이념이다. 이처럼 교리 자체가 환경운동 이념과 다름 없는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어떤가.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환경과 민족문화 지킴이' 등 대표적인 불교 환경단체들은 종단의 무관심과 IMF사태 이후 가중된 재정난으로 더욱 활동이 위축되어 있다.

96년 12월 2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출발한 사찰환경보존위는 현재까지 〈환경지침서〉 발간과 2차례의 사찰환경오염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매월 개최하기로 했던 사찰환경워크숍도 지난 3월에 한번 열렸을 뿐이다.

92년 창립된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은 96년에 여성분과위원회와 청소년환경지킴이단을 각각 구성해 환경실천운동을 벌여오다 지난해 초 사단법인 추진을 위해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꾼 뒤부터 재정난으로 침체기에 빠져있다. 지난해 6월 제16차 전국불교청

■불교 환경운동 실태

단체 구성 10여곳 워크숍·생태기행 환경활동 '소극적'

년대회에서 발족식을 가진 '환경과 민족문화 지킴이'는 현재 전혀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대구 녹색환경감시단, 경불련 환경모임, 불교자원봉사연합 환경모임, 맑고향기롭게모임 환경모임 등 소규모 환경단체들도 환경정화나 생태기행 등 정기적인 활동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부산불교환경운동연합과 불교환경교육원이 불교환경운동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 90년 설립이래 불교환경운동의 이념을 확립해 온 불교환경교육원은 봄·가을 생태학교와 생명운동아카데미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에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불교귀농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불교환경운동연합은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을 겸임하고 있는 정각스님(미룡사 주지)이 금정산 범어사·선암사 사찰환경권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부산지역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과 심록사 주지 정견스님은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과 평택환경운동연합을 이끌며 산문 밖에서 활발한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

"먹는 물 걱정하는 세상"

팔당호등 상수원 오염 3급수 전락
정부 사후감독보다 예방정책 절실

6월5일 환경의 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돼 4~5년 뒤에는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내려졌다. 그간 서울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시라"고 TV광고까지 해왔지만, 서울시민의 4.6%만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등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5월20일 팔당 물금지역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목표수질인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량과 수질로 나눠 이원화됐던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대기·폐기물·자연환경정책과도 연계, 과학적인 수질관리모델을 도입하고 사후 감독방식에서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6.4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후보들도 저마다 먹는 물을 제대로 공급할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물 공급대책과 이어 94년에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수질관리개선대책 등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실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3~97년 총 17조2천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율을 37%에서 73%로 개선하려 했으나 지난해 하수처리율은 55%선에 그쳤다. 2-3급수인 상수원 수질도 97년까지 1-2급수로 향상시키기 못하고 결국 2005년으로 늦추는 '탁상행정'의 무력감을 보여 주었다. 정부가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팔당호 주변에 음식점과 러브호텔 축산시설 등 오염원을 허가하는등 지금까지 수질오염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질을 관리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년동안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3.5배나 늘어나고 거주인구(현재 51만3천명)도 28%나 증가(아파트가구수는 13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관련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5월15일 성명을 통해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상수원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전문가들은 "나만 안 마시면 그만이라는 유역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상수원이 국민들의 젖줄이라는 인식아래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수도권 상수원 팔당호 하류 2~3㎞에는 폐수가 고여 상수원관리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제공〉

불교의 눈 물은 생명수이거늘…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물 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사분율〉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김석중 사무처장은 "지·수·화·풍 4대(大) 중의 하나인 물은 인체의 75%를 차지하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본요소"라며 "각 지방 사찰과 '청소년 환경 지킴이단'을 중심으로 상수원등 주변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시 감시체제인 불교녹색전화(Buddhist Green Phone)를 올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교훈교수(국민윤리)는 〈환경윤리〉(민음사)란 책에서 "환경윤리는 결국 자연보존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간교육을 통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때이른 무더위

엘니뇨 원인…오존주의보도 농작물 피해·생태계 혼란우려

엘니뇨 영향으로 30도 안팎의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에 모기·벌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생태계 교란 조짐이 일고 있다.

5월21일에는 전북 정읍이 최고 33.2도까지 올라가고 서울도 31.4도를 기록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농·수산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5월22일 '올 여름(6~8월) 기상전망'을 통해 "엘니뇨의 여파로 평균기온(22~25도) 보다 2~3도 높은 고온현상이 이어지겠다"며 "6월 장마 직후부터는 폭염이 시작돼 열대야 현상도 잦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앙재해대책본부는 5월20일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에 따른 대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과기부 산하 '국가기후계획위원회') 설치와 국가기후법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총리실 산하의 엘니뇨대책반을 즉시 운영하는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보건과 사회·경제적 피해상황 분석과 △정확한 기상예보 △오존주의보 발령시 자동차운행 규제 등 다양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엘니뇨 현상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다음과 같다.

▲환자발생=갑작스런 무더위로 인해 신진대사와 생체리듬의 불균형 초래 ▲육상 생태계 변화=이상고온으로 식물뿌리에 기생하는 각종 해충이 일찍 알을 깨면서 나뭇잎 대신 새순을 갉아먹어 식물-곤충-조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수산물·수질피해=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가 5월12일 발령됐다. 석회조류(藻類)의 이상번식에 따른 백화(白化)현상으로 수산물도 격감하고 있다. 남해안에는 적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작물 피해=이상고온으로 병충해가 예년보다 20~30% 늘어 보리·벼 피해가 예상된다. 마늘·양파 등 겨울에 파종한 농작물은 잎만 무성할 뿐 알이 작게 드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친화 10대 기술

美 태평양북서연구소 선정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국립태평양북서연구소(PNNL)는 향후 10년간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환경기술 가운데 주목할만한 10대 기술을 선정, 발표했다.

▲안전한 물=상·하수 처리과정의 스마트 필터 기술로 음료는 더욱 안전 ▲농업유전학=유전공학을 이용,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감소 ▲경량자동차=휘발유 1리터로 34㎞이상 달리는 초경량 자동차 등장 ▲재생 에너지=태양력·풍력 에너지 등 무공해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미세기술=마이크로 실리콘칩이 생활·산업분야에서 에너지와 화학물질 사용을 줄임 ▲종이없는 사회=인터넷과 무선통신 사용 증가 ▲생물공정=미생물과 식물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화학·생물제품 증가 ▲재생·재활용=자동차 컴퓨터 플라스틱 종이 잉크는 물론 이산화탄소까지 대기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포착돼 재생된다.

이렇게 들었다

창문을 열기가 겁난다. 도심을 꽉채운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가 연신 오존주의보를 발령케 하고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 다음날에는 사망률이 평일보다 7%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또 최근에는 수돗물 안정성 시비가 재현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하천과 강이 신음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척추동물의 25%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는 국제환경보호운동단체의 최근 조사보고는 경종을 울린다.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부처님께서도 일찌기 환경의 중요성을 설파하셨다. 그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환경

"황막한 길에 숲을 만들어라"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 가는 행위라 부른다. 그러므로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라면, 성읍·부락·산림·천택(川澤)·원관(園觀)·긍전과, 잘 꾸며진 누각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굴과, 모든 곡식-콩·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태우지 말며, 응당 파괴치 말며, 응당 그것에 물을 대지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니건자경〉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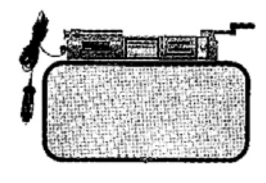
▩산림·광야·타가(他家)·성읍·승방·전목(田木)과 그 밖의 온갖 주인 있는 물건을 고의로 불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범망경〉

▩황막한 길에 좋은 우물을 파거나 과수를 심어 숲을 만듦으로써, 늘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부동국(不動國)에 태어난다. 〈열반경〉

▩자연의 바람이 있어 문을 불어 스스로 열고 자연의 바람이 있어 땅을 불어 깨끗하게 하며 자연의 바람이 있어 꽃을 불어 땅에 흩으니 꽃은 무릎에까지 이른다. 〈세기경〉

▩수행자들이여 수행자로서 배우는 자이며 아직 마음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최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여기고 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에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올바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즉자적 대자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중아함경 근본법문경〉

새상품 공기정화 보안창



자동차 운전시 햇빛과 불빛을 차단해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며 차내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앞 유리 보호창 '그린토피아'.

특수수지로 만든 렉산필름이 부착된 이 제품은 자동차 운전시 강한 햇빛과 차량의 불빛을 차단해 준다. 또 차내의 담배연기나 먼지, 세균, 각종악취 등을 약 5분이내에 제거해 주고 음이온을 발생시킨다.

(주)세밀전자. 3만8천원. (02)418-0270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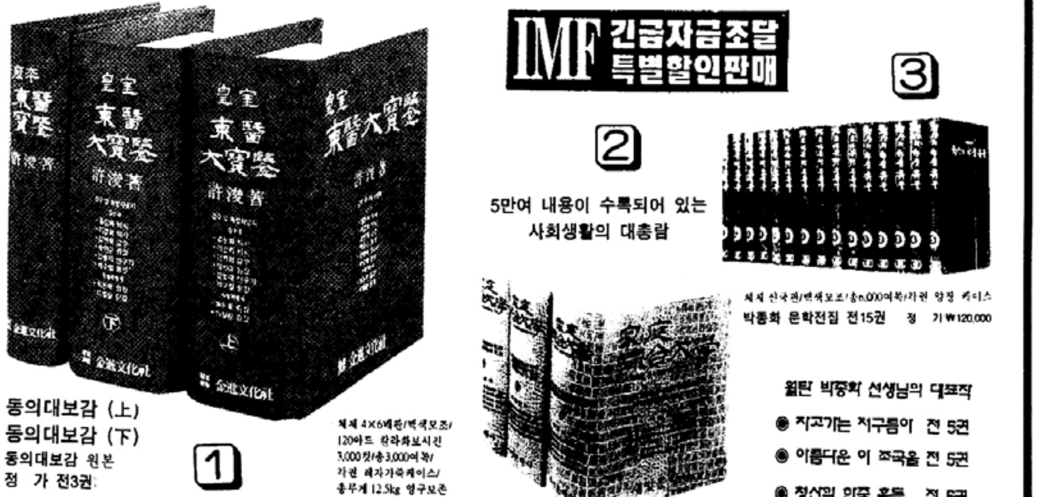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히란야!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피라밋 모자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3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동의대보감 (上)
동의대보감 (下)
동의대보감 원본
정 가 전3권
₩650,000원
1
체제 4×6배판/백색모조/120아트 칼라화보시진 3,000컷/총3,000여쪽/가권 레자가죽케이스/총무게 12.5kg 영구보존
2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3
박종화 문학전집 전15권 정 가 ₩120,000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대표작
◉ 지고가는 저구름이 전 5권
◉ 아름다운 이 조국을 전 5권
◉ 청산의 인종 흙들 전 5권
책임감수
◉ 동의보감의 특징
◆ 특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돈, 량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증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 감쪽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불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침술·지압·미용 수록
◉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얼,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불로초(무공해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동양철학, 관상, 수상, 돌상, 생일, 수연,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축문, 풍수지리, 명당자리, 입춘대길, 충효,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강오륜, 직위, 촌수, 명문, 종가집, 축가, 축사, 연말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특별할인판매
•구입방법•
·정 가 : 350,000
·특별현금가 : 148,000
·할부가 : 49,500×4회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